

하나됨과 나눔

“ 갈릴리로 가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라 ”

< 마태복음 28장 10절 >

-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흩어져서 열심히 생활하는 사랑방 식구들 모두가 방역에 힘쓰며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 공동체학교가 방학을 마치고 개학하며, 입학과 졸업을 준비하는 바쁜 시기입니다. 공동체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공동체 운영위원회 오후 2시에 교육관에서 모입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강단을 꽃으로 :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39 - 6 호

2022년 2월 6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복, 하나님을 따른 삶

우리나라는 설명절을 양력 1월 1일과 음력 1월 1일 두 번을 지냅니다. 그리고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며 서로의 복을 빌어주는 말을 합니다. 새해에는 서로의 안녕과 새로운 희망으로 격려하고 마음을 다시 잡게 합니다.

음력설을 지내는 것은 우리 민족의 자존심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강압적으로 양력설을 지내도록 했으며 음력설을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풍속이라고 하면서 구정이라고 부르면서 폄하했습니다. 1959년부터 음력설을 '설날'이라는 이름의 공휴일로 3일간 확대되면서 음력설을 쇠는 가정이 대부분이 되었습니다.

연휴로 설날이 되면 고향의 가족과 친지를 찾아가는 귀성행렬이 이루어졌고 고향을 찾아가는 그 모습은 고향을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더군다나 이번 설날은 코로나로 인해 3년째 편안히 고향 방문을 자제한 상황이어서 조심한 가운데 다수의 사람들이 고향을 방문하는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집안에서는 설날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같은 말씀을 본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신명기 28장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태가 복을 받아 자식을 많이 낳고, 땅이 복을 받아 열매를

풍성하게 내고, 집짐승이 복을 받아 번식할 것이니, 소도 많아지고 양도 새끼를 많이 낳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곡식 광주리도 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을 지키면 모든 민족위에 뛰어나게 하시며 복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 복을 받는 것인지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해 놓습니다.

예배를 드린 후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 세배를 합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여 둘러 앉은 다음에 가장 연장자이신 분의 기도로 식사를 합니다. 올해도 할머니께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내용은 하나님을 믿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신앙생활을 잘하고 주어진 삶에 충실히 살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집안의 어른이 해주시는 기도는 자손들을 향한 마음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고향을 방문하고 오면 그동안의 삶을 잘 살았는지, 주어진 한해를 잘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검소하지만 당당하게 사는 삶을 기억하게 합니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 보다는 전통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되새겨 보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2022년 올한해 사랑방공동체의 주제는 “갈릴리로 가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라.”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전통을 가진 새해, “설날”을 맞으며 새해의 복을 비는 것처럼 주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고난과 죽음의 삶에서 탈출하여 부활과 영생의 삶을 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한주간 말씀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

<수요기도회>

성경 : 잠언 17:17-28

제목 : 바른 관계를 맺는 지혜

인도 : 최기찬 전도사

기도 : 이어직 집사

찬송 : 88 394 221 219

17 친구와 가족

해석: 사람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다.

적용: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려움중에 고난을 함께 나누고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자.

18-20 친구와의 관계

해석: 사람들과의 관계를 사랑으로 관계 맺되 물질적인 것을 떠나서 관계를 맺도록 해야 한다.

적용: 사람은 불안정한 존재임을 알자. 맹세(보증)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용하자.

21-25 부모와의 관계

해석: 관계에서 가까운 사람에게서 찾아서 실천해야 한다.

적용: 자신이 속한 가정에 충실하자.(가정의 기쁨,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자.)

26 관계에서의 옳은 일

해석: 하나님이 알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적용: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구하자.

27-28 지혜로운 자의 모습

해석: 말보다는 정신 / 일의 행동보다는 신앙(정신)이 중요하다.

적용: 지혜로운 사람이 되자. 우리가 일을 할 때 말보다는 신앙이 중요시하자.

성서일기

나를 위한 공동체에서 공동체를 위한 나로

공동체를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 그것은 서로에 대한 소속감과 우리 각자가 부여 받은 선물을 토대로 하나님과 타인에게 보다 가까이 접근하려는 의욕, 즉 우리 내부에서 빛이 더욱 밝아지고 진리와 평화가 더욱 굳건해지기를 바라는 욕구이다. 마음이 이기심에서 사랑으로, 나를 위한 공동체에서 공동체를 위한 나.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난 이들을 위한 공동체로 이월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린다. 시간과 대단한 정화 작업과 새로운 부활을 창출하는 부단한 죽임이 요구된다.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 자신의 안위를 끊임없이 포기해야 한다.

사랑방의 길은 희생으로 점철된 길이다. 이기심의 뿌리는 우리의 무의식에까지 깊숙이 뿌리박고 있다. 우리가 처음에 드러내는 자기방어, 탐욕 및 개인의 만족 추구 같은 반응은 흔히 그 뿌리에서 자라나는 것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감수성 통제와 극복이 망라된 의지적인 행위만은 아니다. 그것은 그저 시작에 불과하다. 사랑하는 일에는 자발적으로 상대방을 향하는 순화된 마음과 감정도 요구된다. 그리고 이러한 심오한 자기 정화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서만 성령께서 생활하고 계시는 우리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솟아나는 은총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로자이신 성령을 파견하시어 이 새로운 에너지, 이 힘, 이 훌륭한 마음을 불어 넣어 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상대방을 -심지어 그가 적일지라도- 있는 그대로 환영하며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랄 수 있게 해주마고 약속하셨다.

사랑을 배우는 데는 평생이 걸린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우리 존재의 가장 내밀한 구석구석까지, 공포감과 장벽과 질시가 자리 잡고 있는 모든 곳까지 두루 스며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각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반갑게 맞이하고 사랑하고자 노력할 때 공동체는 이룩되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롬15:7)

지체들의 삶

장 바니에, [공동체와 성장] 중에서.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권재만 목사
설교자 : 정재훈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요한복음 11 : 25-27 인도자
21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요한복음 6 : 37 인도자
540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교

요한복음 20 : 24 - 29 설교자
440 사랑방
“ 의심에서 확신으로 ” 정재훈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설교자
357 다함께
인도자
516(1)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김영동 전경희 / 봉헌위원 : 오영옥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은
서진술 석지인 옥대철

예 배

공동기도문

저희를 사랑하셔서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확신속에 거하며 충성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의심에서 확신으로

의심하는 도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현장에 없었던 도마는 다른 제자들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도마는 불신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은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생생한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로서는 어찌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도마는 자신의 경험과 이성이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충성스러운 도마. 죽은 나사로를 만나러 가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도마는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의 배경은 예수님이 가려던 지역은 예수님께 매우 적대적으로 행한 사람들이 있는 곳 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가시겠다 하시니, 그러면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동료들을 독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따르는 매우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의심에서 확신으로. 유월절 만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도마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다.” 대답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눈으로 뵈는 도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도마는 정직하게 반응했습니다. 결국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놀라운 신앙고백을 하게 됩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강춘자 권사

꾸러기 부모를 졸업하며

들어가며.

처음 학교를 방문 한 날, 꾸러기 교실에 들어가기 전 석판에 적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석판이 가장 먼저 눈에 띄었습니다. 진리를 아는 것과 자유는 연결되어야 하는데 진리를 알아도 자유 하지 못하여 완전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이곳에선 아이가 어떠한 자유를 느낄 수 있을까? 궁금증과 기대를 갖고 소리의 학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 긴장감

9시 30분. 꾸러기 차가 도착할 시간, 소리와와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릅니다. 현관을 나서 저 멀리 노란색 차가 보이면 이내 울음을 터뜨리고 가기 싫다며 떼를 쓰던 소리를 어떻게 든 차에 태우려 하니 팽팽한 긴장감에 땀을 쏟아 내게 됩니다.

4. 두려움과 기대

처음 소리를 보내며 가장 먼저 맞이한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가장 큰 주범은 아이와 물리적 거리감이었습니다. 한 번도 떨어져 본적이 없는데 꾸러기 특성상 여행 등 떨어져야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불안감과 물리적 거리감이 기대 보다는 늘 두려움에 가까운 긴장감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 안에 있던 두려움은 어느새 기대로 가득 차 있었음을 느꼈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대한 불안에서 소리에 대한 기대로 바뀌었습니다. 학교를 다녀와 재잘거리며 경험을 털어놓고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소리의 말을 듣고 있으니 문득 두려워했던 지난 날들이 조금은 부끄러워집니다.

5. 고생길에서 만난 행복

아이를 만나면(아이가 태어나면) 고생길 시작이라는 선배들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 모든 것이 처음이고 낯설고 그것은 결국 고생이라는 사실은 진리에 가까웠습니다. 대안학교 특성상 부모의 참여가 많다는 것은 또다른 고생길의 시작이었습니다. 알고 있었고 감당하리라 마음먹어도 항상 고생길 위에 서있다는 생각을 떨쳐 버리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고 꾸러기학교를 경험하다 보니 길 위에 있지만 지나가는 법을 알게 되었고 어디쯤 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고생길이 아니라 길너머에 있는, 아니 때론 길 위에 우리를 맞이하고 있는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배움과 가르침

삶은 언제나
은총(恩寵)의 돌층계의 어디쯤이다
사랑도 매양
섭리(攝理)의 자갈밭의 어디쯤이다.
설일 申 (김남조, 1927~)

1. 변화와 변화

어느덧 3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 변화가 어떻든 간에 우리는 변화를 맞이해야 합니다. 돌아보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저 시간에 따른 변화도 있겠지만 소리에겐 정말 특별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소리의 삶이 아주 멋지게 변화길 늘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없이 삶의 멋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꾸러기를 통해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 소리는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린이가 되었습니다. 부모인 저희가 가끔 부끄러울 정도로 말합니다. 때론 보이지 않는 길에 소리가 등불이 되어 주기도 하고 힘들고 지칠 때 설 수 있는 따뜻한 집이 되어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전에는 전혀 알지도 못했고 그래서 기대도 할 수 없었던 변화입니다. 꾸러기를 통해 소리가 좋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고 소리를 통해 저희도 변하게 된 것 같습니다.

2. 감사

9시 30분. 꾸러기 차가 도착할 시간. 소리의 기쁨이 최고조에 이릅니다. 현관을 나서 저 멀리 노란색 차가 보이면 이내 크게 함박웃음을 짓고 빨리 가고 싶다며 등교하는 소리의 모습을 보며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일어나요 꾸러기 뒤풀빵빵 요술차 타고, 붕붕!!

마무리하며.

소리가 꾸러기에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소리를 성장하게 하였고 성숙하게 하였습니다. 비록 코로나가 빼앗아간 일상때문에 꾸러기에서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것을 다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모든 것이 충분했습니다. 신앙, 관계, 이성, 감성 등. 부모가 할 수 없고 다른 곳에서 경험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꾸러기에서 소리에게 주어졌고 소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을 충분히 배웠습니다. 진리안에 자유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세계에서 보고 듣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소리의 성장을 함께 웃고 울며 지켜봐 주신 선생님들과 언니 오빠, 친구, 동생, 그리고 사랑방 공동체에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꾸러기학교 이소리 아빠 이선우

거제도 여행

1월은 저에게 방학이 있는 휴식의 계절입니다. 꾸러기학교 2022년 준비나 교회 일 같은 일은 있지만 대체로 쉼을 가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보통 지친 몸을 회복하고, 그 동안 하지 못한 일을 했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코로나19 시국이라 조심스러운 일인데 사실 동생 이어직집사가 거제도에 일을 하고 있어서 격려차 가려고 했는데 너무 멀어서 이어진전도사님과 이돈희선생님과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한 주만 있으면 명절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병원예약이 중간에 있었는데 이 때가 아니면 못 갈 것 같아서 여행 당일 날 아침에 급하게 수정해서 후다닥 거제도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멀리 있는 거제도를 가면서 오랜만에 타지로 가는 상황에 설레고 참 좋았습니다. 항상 아이들 데리고 여행이나 견학을 갔지만 이렇게 개인적으로 어딘가를 가는 게 너무 오랜만이었습니다. 이렇게 길게 운전한 적이 없는데 말동무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수월하고 즐겁게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거제도에는 도착한 날 포함 3박4일을 있었습니다. 동생은 일 때문에 바빴는데 일정을 조정하더니 최대한 같이 시간을 보내주려고 해서 꽤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거제도를 돌아보면서 아름다운 바다와 자연 경관은 가히 예술이었습니다. 계속 바라보면 마음도 편안하고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곳을 뽑으라면 포로수용소와 조선해양문화관이 기억에 남습니다. 같이 간 일행들 모두 박물관을 좋아하고, 역사와 사람에 관심이 있어서 가봤는데 거제도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노바협정 이후 처음으로 바뀐 인간적인 대접을 받는 포로들의 모습들과 세계적인 수준의 한국의 조선업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가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동안 여행이면 직업병 같이 몇 시에 어디를 가고, 뭘 먹고 막 준비하고 그에 맞춰서 지냈는데 이번에는 그 동안 공동체 청년들이 못했던 얘기도 많이 나누고, 편안하게 쉼을 가진 시간이었습니다. 거제도에 볼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지만 항상 새벽에 자고, 오전에 일어나 점심에 나가는 일정이어서 다 같이 코웃음을 치며 애들이랑 있었으면 꿈도 못 꾸는 일정이라고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여유를 가지고 삶과 마음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3만명 시대, 마음 편하게 누군가를 만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행이 끝난 시점에 예전에 방모임과 교인들과 교회생활을 한 느낌이었습니다. 여유롭고 삶을 나누면서 지내는 느낌이 오랜만이었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모든 분들이 사랑방공동체에서 만날 수 있는 그 날을 소망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디아코니아사랑방 이어람 집사

함께사는 이야기

<수요 정오기도회>

말 씀 : 신명기 28장 1-6절

인 도 : 최기찬 전도사

기 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미안마를 위해>

미안마에서 쿠데타가 발생한 지 1년을 맞은 어제(1일) 미안마 최대 도시 양곤을 비롯한 곳곳에서 '침묵 파업'으로 군사정권과 쿠데타를 거부한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주기위해 자발적으로 동참했다.

양곤과 만달레이에서는 군부를 비판하는 기습 거리 시위가 벌어졌다. 시민들의 반발에도 쿠데타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어제 비상사태를 6개월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2. 교회 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살롬공동체>

1) 봄 농사 준비가 잘 진행되도록,

2) 살롬공동가정학교가 주님을 배우는 진정한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3) 신앙의 본질을 잃지 않고 사랑 안에서 한몸되어 살아가기를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1) 설 연휴 오고가는 길 안전을 위해, 가족과의 만남이 코로나 확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2) 명절을 맞이하여 외롭지 않도록(외국인, 해외에 있는 식구, 군복무, 독거인)

<생활공동체 소식 >

오래간만에 생활 공동체 식구들이 한 자리에 모여 모임을 가졌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모임을 시작하고, 새롭게 개편된 정관에 따라 부서를 조직했습니다. 영농을 비롯한 생활 전반에 필요한 부분에 각자 자원하여 역할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생활의 목적과 생활 원칙들을 다시 한번 듣고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살게 하신 의미를 다지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새롭게 공동생활에 함께하게 되는 식구들을 환영하며 밝은 모습으로 인사를 나누는 공동생활 식구들의 모습을 보니 2022년은 더욱 기쁘고 행복한 한해가 되겠다는 기대가 가득 넘쳤습니다.

< 장영미 전도사 >